

# 예수성심월 6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성가대 예수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제:	“사랑의 자비심”	“연중 제 10 주일”	2008년 6월 8일
복음 묵상:	마태 9,9-13	호세 6,3-6	로마 4,18-25

기득권으로 텃세나 부릴 줄 알고, 제 잘난 것에 저워 자기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자기 눈의 들보는 생각지도 않고 형제들의 눈에 든 티끌(마태 7,4)에 관심을 둔 채 틀렸다가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며 험담이나 하고 따돌려 밖으로 내몰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가슴에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혹시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한 축에 속한다고 자처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아픈 곳, 굼은 곳, 하느님 앞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기를 중단하고 다른 것으로 해석한 나머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이 대면서 의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병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치장으로 거들먹거리기보다, 남보란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섬김을 살아야 합니다. 무심코 생각없이 했던, 의도적이었던 나의 한마디 말과 날이 선 손가락질과 눈 흘김에 상처입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살 된 한 소년이 뇌종양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소년은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나간 민둥민둥한 머리를 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학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특별생활을 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년의 친구들은 의견을 모으고 오래 논의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실천했겠습니까? ... (잠시 침묵으로 사람들이 답을 해볼 시간을 갖는다.)

다음 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의 친구들은 모두 머리를 뽀뽀 민 채 나타났습니다. (안동 이 준건신부님)

## 1. 성가대 소식

-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6/7 (수) 2 주간의 여정으로 네델란드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 잘 치루고 편안한 여행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최효훈 토마스 형제님 한국 출장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편안한 여행에 주님 함께 하셨으니 감사...
- 이 은순 아녜스 자매님 6/15 저녁 7:00 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가족들은 참석하시어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50-380-2236)
- **가곡의 밤에 초대;** 김 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이 활동하시는 메스코 코랄에서 “봄,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주제로 6/15 저녁 7 시 30 분 산호세 주사랑 교회에서 가곡의 밤을 선사합니다.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 1555 Oak Ave, Los Altos, CA 94024 (산호세 주 사랑교회)

## 하반기 임원 회의 소집

2008 년 하반기 성심 성가대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를 소집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2008 년 6 월 22 일( 교중 미사후 ) 성가 연습실

참석자; 지휘자, 반주자, 각 임원, 각파트 장 및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사람.

의제; 1. 성가대 피정 (9 월 27 일 예정), 2. CD 제작건, 3. 성가대 복 4. 공소 방문  
5. 기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마태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대 사면령**

거룩한 연옥 영혼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라는 지향을 미사에 참례때 혹은 기도하면서 붙이면 매우 큰 선행과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청, 성 바오로 탄생 2천주년 사면령**  
(서울=연합뉴스)

로마 교황청이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천주년을 맞아 6월 28일 저녁 미사때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1년간 고해성사 등을 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全大赦)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23일 밝혔다.

\*\*\*\*\*

교황청은 내사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탠포드 추기경 명의의 교령을 통해  
 ▲ 교황 대성전인 오스티엔세 거리의 성 바오로 대성전을 순례하고 교황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 지역 교회 신자들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등을 이행할 때  
 ▲ 질병 등으로 성당에 가기 어려운 신자들이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대사는 이 세상이나 연옥에서 잠시 받는 잠벌(暫罰)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교황청이 내리는 일종의 대사면이다.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되지만 그 죄에 따른 잠벌은 여전히 남아 보속(補贖)을 통해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 잠벌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전대사이다

**1분 명상 "사랑에도.."**

사랑에도 품격이 있고 의리가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사랑에는 품격을  
 친구와의 사랑은 의리를  
 부부간의 사랑은 희생을.....

